

전영호 전북대병원 교수, 대통령 표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응급의학과 전영호 교수가 지역응급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1회 보건약학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진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초창기 우리나라 응급의학의 학문적 기틀을 다지고 후학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과 교육계획 수립 등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응급의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전북 응급의료지원센터장 및 전북 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응급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안전권 확보에 기여했다.

특히 공군 군의관 시절 군산시 옥구군 관내 지역 양로원 및 무의탁 노인시설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민 자선 의료봉사를 실시하여 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고 국내외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봉사를 통해 인술을 베풀었다.

/김영태 기자



전주기상지청-정읍시기관장협, 지역발전 협력 도모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이용섭)은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정읍시 기관장협의회인 정읍시회 회장 임경수 정읍시청(병원장)과 4월 월례회를 11일 개최했다.

정읍시는 기관 간 업무 협조와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발전전에 이바지하고자 정읍시 28개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날 기관장들은 개관을 앞둔 체험관 시설을 관람한 후, 지역발전 위한 적극적인 과학관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약속했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은 미래 주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 기상청과 정읍시가 협력해 설립한 전라북도 대표 기상과학 문화공간이다.

지난 17년 개관했으며 연간 32,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올해 7월 개관을 앞둔 2,009㎡(608평) 규모의 신축 체험관은 기상관, 기후변화관, 외부 체험 공간 등으로 조성했으며 올 연말까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임경수 회장은 "현장에서 개최하는 기관장 모임을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기상과학관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용섭 정읍시장은 "체험관 개관을 계기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이 학생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정읍의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용섭 전주기상지청장은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을 기상과 천문이 융합된 체험 중심의 특색화 과학관으로 발전시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정읍보호관찰소,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캠페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멸위기의 고향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자는 뜻을 모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조영술 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정읍' 캠페인에 정읍보호관찰소 직원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가족들에 널리 홍보하여 정읍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를 통한 사회봉사자 투입으로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정읍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글로벌축제로 도약하는 밀거름 마련 해”

제7대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 유승열 선출

제7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에 유승열 전 무주군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제전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열린 총회에서 유 신임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위원장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2년 단임제로 단축시키는 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유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2월에 개최될 예정인 정기총회 종료까지 2년간이다.

신임 유 위원장은 "현재 정부지정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이며 전라북도 대표축제인 무주반딧불 축제에 대한 신임 위원장의 관심이 높고 있다"며 "환경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밀거름을 마련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지역민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이 반딧불축제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성한 축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제의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축제에 담겨있는 질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겠다는 계획이다는 각오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생태환경축제로서의 본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연특별시 무주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더불어 참여하는 문화관광행사에 방점을 두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임 유승열 제전위원장은 군의원 4선을 지내오면서 무주군의 회 7대 후반기 의장과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 동안 무주군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개발공사,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11일 공사 1층 강당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훈 전문강사를 초빙해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제도에 대하여 공사 맞춤형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간부진이 모두 참석하고, 1일차 신입직원 5명 등 70여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윤리경영 정착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높은 윤리의식 수준에 부응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관리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관리자의 청렴을 기반으로 전사 역량을 집중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2등급)을 인증받았다.

/이경아 기자



전주비전대, LX 전북본부·무주지사서 현장체험학습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박종화)와 무주지사서 지적토목학과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전주비전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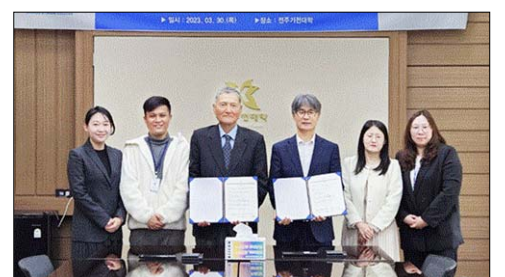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LX가 수행하는 지적측량 업무에 대한 소개와 시연, 학생참여를 통한 체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화 본부장은 "지역사회 젊은이들의 열정과 꿈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LX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정민 교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체험학습은 지적토목학과에서 수년간 운영한 공무원·공기업 맞춤형 교육이 더해져 우수 기업의 취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양 기관의 1:1 취업지원 교육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도 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학생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용교육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는 전라북도 유일의 지적관련학과로, 2019년도부터 매년 40여 명의 공무원과 공기업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총장 조희천)은 관내 다문화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공동체적 책임을 위해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18일 개최하는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가족 행복동동회, 글로벌 셀러드를 행사에 홍보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천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에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게 우리가 받은 도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대학의 비전인 국제생활형 직업인, 실천형 봉사사에 맞게 교직원 및 학생이 국제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차아 지원 사업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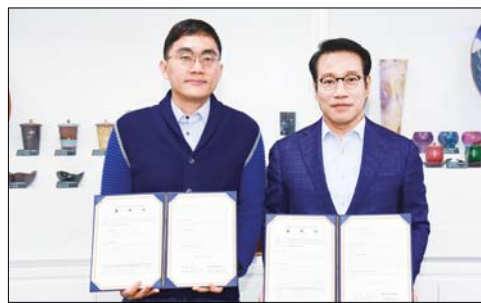
남원시는 지난 4월 초부터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는 '행복미소 차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은 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반면, 65세 미만자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차아 시술이 필요함에도 시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차아 손상을 저차 가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외관상의 변형과 영양섭취 불균형을 유발해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남원시는 2023년 신규 시책으로 '행복미소 차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남원시지과의사협회(회장 김동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남원시는 사업대상자를 발굴해 남원시지과의사협회 소속 치과에 차아 시술을 요청하고, 치과는 지역사회 나눔 복지 실현을 위해 초진은 무상제하고 의료비는 최대 24% 할인하게 되며, 1인당 최대 270만원 한도 내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90%를 지원, 사업대상자는 20명이며 시술 항목, 연령 장애인 유무 등 객관적 접수표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시술 후 시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시술비 9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타 공금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620-6210)에 문의, 신청은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이 더욱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상의,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표창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11일 전주상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헌신해 온 (주)강동오케이, (유)국민종합주방관리, (주)도시순조경 나무병원, (주)명성화학, (주)삼우생동, (주)신일, (주)원진일기능, (유)전주이강주, 한국포도원제약(주), 전주상의 직원 등 우수 기업과 모범 직원에 대한 전북도지사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윤방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가와 원자재 가격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해온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전북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아 기자



덕진경찰 모래내지구대, 보이스피싱 예방 전력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모래내시장 상인 대상으로 모래내지구대와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고액인출 대면편취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모래내시장에는 약 200여개의 점포가 운영 중에 있고 농촌에서 가져온 농산물 판매 가판대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모래내지구대는 시장 내 영세한 상점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과 금융감독이나 검찰·경찰 사칭 전화에 속지 않도록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주민식 홍보활동을 전개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한 예방활동을 펼쳤다.

김태형 덕진경찰서장은 "영세한 시장상인들이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저금리 전환대출이나 금융감독 등 검찰·경찰 사칭 전화를 받으면 112신고와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자 사후관리 사업 실시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1일과 12일 이틀간 남원시생생학습관 3층 다목적강연장에서 구직자 130명을 대상으로 '취업인식전환교육' 특강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구직자들의 취업과 관련해 긍정적 인식을 형성 활발한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취업 희망 여성들의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고취시켜 취업 의식 확산에 목적이 있다.

이번 특강에는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비영리컨설팅 웰컴의 표경희 상임대표를 강사로 초청,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소셜 디자인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620-5280~5)로 문의하면 된다.

지양근 센터장은 "취업인식전환교육을 통해 취업에 대한 마인드가 재정립되고 자기개발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사회 참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